



"바다에서의 기상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최근 상영된 ‘캐스트어웨이(Cast Away)’라는 영화는 비행기 사고로 바다에 떨어져 무인도 해변가에 끌려가 온 천지를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바다뿐인 그 섬에서 살아남은 한 남자의 탈출기를 그리고 있다. 주인공은 그곳에서 수년을 생존하며 기다리다 마침내 조그만 뗏목에 의지하여 날씨를 잘 선택해 섬을 떠난다. 그 뗏목은 바람을 타고 바다 위를 떠돌다 지나는 상선에 발견되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의 영화이다. 주인공이 바다에서 낙엽에 불과한 뗏목만으로 항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날씨가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바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성패 여부는 날씨가 좌우한다. 따라서 바다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해운업계에 제일 중요한 사업정보는 날씨정보이다. 항해 도중 폭풍을 예상하여 이를 피하는 일은 선박이나 선적한 화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선원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바람을 잘 이용하면 운항에 소요되는 시간을 훨씬 앞당길 수 있어 회사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상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문제는 바다를 수단으로 사업하는 해운업계의 최대 관심사항이다. 항해뿐만 아니라 항구에서도 해운회사는 기상정보가 필요하다. 배가 정박해 있는 항구에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면 배를 단단히 정박시켜 태풍에 대비하거나 안전한 항구로 이동해야 한다. 이처럼 바다나 항구에서의 기상정보는 해운회사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 해운회사 가운데 널리 잘 알려진 한진해운은 1977년에 창립 이래 현재 전 세계 35개국 70여 항구를 기항하여 전 세계 6,000여 목적지로 화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고 있는 세계 5위 규모의 종합물류 업체이다. 한진해운은 세계적인 해운회사답게 기상정보를 사업에 잘 활용하고 있다. 5대양을 누비는 230여 척의 자사 선박의 항해도중 안전성은 기상조건에 따라 결정되니 기상정보는 생명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진해운은 웨더뉴스(주)로부터 제공받은 기상정보와 부가 항해

정보 뿐만 아니라 자사의 선박에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수시로 선박의 위치와 함께 시정, 풍향·풍속 등 기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고위관리자가 참여하는 ‘경영관리위원회’에서는 한주간의 기상정보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가장 먼저 논의할 만큼 기상정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한진해운이 기상정보를 중요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안전한 운항’ 때문만은 아니다. 고객과 약속한 시간까지 화물을 운송하는데도 기상정보는 필수적이다. 안전운항과 항해기간 단축은 인명피해를 줄이고 운항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와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히 하는 기초가 된다. 한진해운은 기상정보 구입비용을 고정비로 계상한다고 한다. 기상정보가 ‘돈’을 버는데 필요한 ‘돈’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은 기상청, 웨더뉴스(주), 외국 기상청 등으로부터 이용 가치가 있는 모든 기상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는 기상정보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본사와 항해중인 선박이 함께 공유하는 정보가 된다. 또한, 웨더뉴스(주)에서 제공되는 선단관리 프로그램 POLARIS와 최적항로 추천 서비스를 활용한다. 한진해운 운항팀 사무실에 가면 기상청 예보실과 같이 각종 기상분석자료와 수치예보자료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운항팀은 최신기상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선박운항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상정보를 처리하는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팀원 대부분이 실무경험과 해양기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진해운의 배들은 세계 곳곳을 항해해야 하므로 전세계 각지의 기상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혹독한 허리케인이 위협하는 대서양은 기상조건이나 빠른 운항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태평양의 태풍과 인도양의 사이클론, 알류우산 저기압도 경계해야 할 존재다. 선박들이 주로 먼바다를 항해하기 때문에 외국 지역의 기상정보를 주로 이용하지만 국내 기상정보도 유용하게 활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출항할 때는 태풍을 피해야 하므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태풍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설탕, 밀가루, 보리와 같이 기상변화에 민감한 화물을 싣고 출항을 기다리는 선박도 일기예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 부산·경남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지만 한진해운은 폭설예보에 따른 대비를 적절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한진해운이 기상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사의 항해선박을 지원하게 된 것은 십 수년에 불과하다. 그 이전에는 선원들이 오랫동안 바다에서 얻은 경험으로 날씨를 전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보다 위성영상, 수치예보 등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과거보다 운항사고를 대폭 줄였다고 한다. ‘바다를 정복한 자가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이 있다. 바다를 정복하려면 먼저 기상을 알아야 한다. 한진해운이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계적 해상물류수송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기상정보가 없이는 불

가능했다. 한진해운은 경영목표인 ‘고객만족경영’을 위해 기상정보시스템을 보강하고 날씨경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진해운 운항팀 관계자는 “기상정보는 산소마스크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자신의 항해경험을 소개하며 산소 없이 인간이 살 수 없듯이 기상정보 없이는 항해가 불가능하다며 기상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다에서의 기상정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